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 산문으로 되새기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적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도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산문집 ‘무소유’ 중에서>

법정스님은 오랜 기간 동안 ‘글쓰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다. 잔잔하게 써내려가는 스님의 글은 오랜 사색에서 깊어올린 터라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지난 1976년 첫판을 낸 ‘무소유’(법우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판을 내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법정스님이 1970년대 초반부터 쓴 글을 모아 펴낸 책은 무한경쟁과 탐욕의 시대에 우리가 지나야 할 마음의 등불인 ‘무소유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불교의 본래 무일물(本來無一物), 즉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세상을 하직할 때 가져가는 것도 없다는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산문집 ‘무소유’에 수록된 1971년의 글 ‘무소유’에는 법정스님이 평생 수심권의 책을 통해 반복해 강조했던 무소유의 정신



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죽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을 내가 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유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대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왜 우리가 서로 중요해야 하단 말인가.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나그네를 아닌가.”

“무소유에 실린 ‘죽은 그 쇠를 먹는다’ 역시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명문이다.

1992년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출가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화천민비 버리고

떠난 산골 오두막으로 들어간 스님은 1995년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에 이어 새천년을 앞둔 1999년 12월에 수상집 ‘오두막 편지’를 내놓는다.

스님은 강원도 산골 생활 17년째가 되던 2008년 11월에는 길상사 소식지 ‘맑고 향기롭게’에 기고했던 수필을 모아 ‘아름다운 마무리’를 펴내 삶의 마지막에 선 노승의 마음을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스님은 2007년 한차례 병으로 입원하면서 이미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스님은 “놓아두고 가! 때가 되면, 삶의 종점인 선달 그림날이 되면, 누구나 자신이 지던던 것을 모두 놓아두고 가게 마련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미리부터 이런 연습을 해두면 떠나는 길이 훨씬 즐거울 것이다”라고 말한다.

스님이 말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역시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해 소유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갖춘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없이 떨쳐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법정스님의 첫 법문집인 ‘일기일회’(2009년 6월 출간)에도 무소유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2007년 가을법회에서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법정스님. /연합뉴스

“우리 사회에 맑은 향기 전해 주신 큰 스님”

■ 법정스님 입적 종교·문화계 큰 충격

11일 입적한 법정스님은 생전 종교계를 넘어 문학, 미술 등 문화 예술계 다방면으로 수많은 인사와 교류했다. 가톨릭 신자로 길상사의 관음보살상을 조각해 화제가 됐던 원로 조각가 최종태 김중영미술관 관장은 스님의 입적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최 관장은 “김수환 추기경이 가시고 1년 만에 또 법정 스님이 가셨다”라며 “가까이서 의지하던 분들이 가니 버림받은 자꾸 가는 것 같아 나 자신도 많이 꺾인다”라고 슬퍼했다.

그는 “관음상을 조각해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법정 스님이 연락을 해와

그 뒤로 10여 년간 가깝게 지냈다”고 인연을 회고한 뒤 “전날 식사를 하신다는 기사를 읽고 관찰하신가 보다 했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최 관장은 이어 “깨끗하고 향기로운 품격을 갖고 있던 분”이라며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글들을 통해 맑은 향기를 우리 사회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하셨다”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의 수필집 ‘아름다운 마무리’에 등장하는 소녀 ‘봉순이’ 그림을 그린 박항을 화백은 “열을 전쯤 병원을 찾았지만 주무시고 계셔서 직접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돌아왔다”며 “당시 주변에서 좀 더 좋아지실 것이라 그랬었는데 돌아가셨다

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안타까워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부인을 따라 절에 나가면서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는 박 화백은 ‘봉순이’ 그림에 대해 “스님께 작은 소년을 그려 드렸더니 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나는 소녀가 더 좋아’라고 하셔서 소녀 그림을 다시 그려 드렸던 것”이라며 스님의 생전 모습을 회상했다.

이밖에 문화계에서는 고은 시인과 류시화 시인 등이 법정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었으며 불교 관련 소설과 산문을 주로 쓴 소설가 정찬주 씨는 법정 스님으로부터 직접 법명을 받기도 했다.

또 작고한 동화작가 정채봉 씨도 생전 법정 스님과 오랫동안 친분을 나눴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연합뉴스

“새봄, 난향 속으로”

‘2010광주난대전’ 13·14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난은 키우면 키울수록 오묘한 화초다. 사시사철 푸른 자태는 옛 사람이 말하는 절개를 상징하고, 머릿속이 상쾌해지는 듯한 은은한 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광주난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13~14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10광주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주난회, 광주난우회, 나누리난우회, 다사랑난우회 등 14개 단체 회원들이 출품한 한국춘란, 야생화 등 300여 점을 선보인다.

화에품으로는 소시, 주금화, 주홍화, 자화, 복분보색, 두화, 원관화 등 17개 부문에서 작품이 선보이며 예품으로는 중후호, 복분, 사파, 호피, 산반, 산반중후호, 단엽 등이 출품된다.

연합회는 출품작에 대한 예선, 본선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최상기 연합회 회장은 “회원들이 겨우내



김정자씨 출품 ‘복분화’

정성과 애정을 쏟은 다양한 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진정한 자연의 이치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11-606-92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롱한 플루트의 매력에 ‘흠뻑’

15일 나주 심향사 ‘하우스 콘서트’

영롱한 플루트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나주에서 플루트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무지크 바움’은 3월의 ‘하우스 콘서트’로 ‘이현경의 플루트 이야기-봄날의 꿈’을 준비했다. 15일 오후 7시 나주 심향사.

연주 레퍼토리는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 슈만의 ‘베니스의 사육제’, 영화 ‘미션’ 중 ‘가



이현경 단장

브리엘 송’, ‘사운드 오브 뮤직’,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 ‘문 리버’, ‘섬집아가기’ 등이다.

전남대와 프랑스로 노르말음악원 등을 거쳐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는 자신이 단장을 맡고 있는 ‘에콜 드 플루트 앙상블’과 함께 무대에

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국립민속박물관 “민속자원 공동조사”

전남도가 국립민속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35억원을 들여 남도 민속자원에 대한 공동조사와 개발에 나선다.

전남도는 12일 오전 도청 정약용실에서 국립민속박물관과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08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1 지역민속문화의 해’ 공동사업 대상기관에 전남도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박물관, 유물관, 학계 등 전문가 16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대한 지도와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민속마을 등을 심층조사해

기록하고 민속마을 체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박물관, 유물 등록을 지원하는 박물관 협력망 사업 등을 펼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난 1월부터 소속 연구원들이 목포시 유달동, 영광 법성포, 장흥 삼거리 등 3개 마을에 상주하며 해당 지역의 의식주 생활양식, 민간신앙, 세시풍속, 구비전승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또 죽물과 옹기, 담과 돌문화, 대마와 삼베 등 전남의 민속문화를 대표하는 주제를 선정해 조사한 뒤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내년에 민속특별전시회와 민속축제 한마당,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민속학자 대회, 민속문화 학술서 발간 등 부가사업도 하기로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성 헤어 기능장호 **大山프리모남녀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 HAVEN

SBS·KBC '사람세상' 촬영

가발

초슬림!! **각각 50만원~**

귀여운 볼륨과 외력을 높여주는 영남민 풍선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011-606-9240, 011-606-9255

정말 편안하고 아름다운 쉼 **무등산 분만경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임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셨습니까?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35